

	인도 (뉴 델 리) 사 무 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 0 2 4 . 9 .

CEPA Insight

- 인도, K-건설 미래 돌파구...스마트시티 100곳 추진
- 인도, 2024/25년도 7.2% 경제성장 무난히 달성 전망

■ 인도, K-건설 미래 돌파구...스마트시티 100곳 추진

-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의 구조변화가 빨라지며 더 나은 기회와 높은 생활수준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잦아짐. 인도의 도시인구는 10년 전인 2011년 조사한 공식 통계로 3억7000만 명에 달함. 이는 전체 인구대비 31% 수준. 현재는 36% 수준으로 2050년까지 50%(8억7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빠르게 인구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범죄, 환경 등 각종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인도 정부는 스마트시티 카드를 꺼냄.
- 2015년 인도정부는 **스마트시티 미션(SCM)**을 개시해 전국에 100개의 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의 일부지역을 개발해 인프라 관리, 사회적 불평등 해결, 지속가능한 환경 등 개발 효과가 인근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계획. 도시개발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해 도시 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인프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
- 웨스트벵골주를 제외한 인도 전국 지방정부가 참여해 각 주당 최소 하나의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지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각각의 도시는 2017 ~ 2022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 성과를 도출하기로 함.
- 스마트시티 지정도시는 개발공사역할을 하는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SPV)를 설립해 실제 사업을 수행. 주요 스마트시티 개발분야는 ▷교통 ▷에너지·환경 ▷수자원위생 ▷주거 ▷경제.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총 7,742개의 프로젝트 중 6,019개가 완료됐으며 현재 진행형이기도 함. 이달 초 국내 제조업의 진흥을 위해 10개 주에 걸쳐 12개의 산업 스마트시티 개발을 승인했으며, 이를 위해 약 2조 8602억 루피(약 45조 6201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동원될 예정.(출처 : 헤럴드경제 2024.09.10)

■ 인도, 2024/25년도 7.2% 경제성장 무난히 달성 전망

- 아시아 제3위 경제대국 인도는 2024/25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예상대로 7.2%경제 성장을 달성할 전망
- 다스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뭄바이에서 열린 연례 FIBAC बैंक 회의에 참석해 4~6월 1분기 인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연 성장률은 책정한 7.2%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함
- 2023/24년도 인도 성장률은 8.2%를 기록. 2024년 1~3월 분기는 7.8% 성장.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7%로 감속. 시장 예상 6.9%와 중앙은행 예상 7.1% 모두 밑돌았음.
- 다스총재는 인도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견인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모멘텀이 커지고 있기에 고도성장의 신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부문이 몬순기에 좋은 날씨로 인해 연도 말까지 더 나은 성과를 거둬 농촌 수요가 더욱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의 재정투자가 가속해 성장에 탄력이 붙게 된다"고 낙관.
- 그는 "인도가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있는 게 분명하다"며 "성장의 2대 동력인 소비와 투자 수요가 연동해 증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24/25년도 7.2% 성장한다는 중앙은행 예측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현재 인플레이션과 성장사이에 균형이 잘 잡혀 있다면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지원을 위해서 물가안정을 무엇보다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함. 변동성이 크고 고수준의 식품 인플레가 자주 디스인플레 페이스를 끊어버리기 때문 이라고 설명. 식품 인플레는 전체 인플레에서 46% 비중을 차지. (출처 : 뉴시스 2024.09.06)

■ 시사점

- K-건설이 그동안 인도에서 수주한 실적은 인도 건설산업규모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임.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회사들이 인도에서 수주한 공사비는 1,485만불로 몽골(1,991만불), 라오스(1,558만불)에 이어 14번째 순위. 국내 건설사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평가. 그마저도 우리 제조기업의 현지 생산공장과 연구시설 건설, 소규모 엔지니어링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에서 진출할 수 있는 유망품목들을 선별하는 절차부터 주문함. 우천시 수위조절이 가능한 수처리 시설이라던지 폐기물시설, 공공주택 건설, 보안시스템에 국내 기술력이 우위를 보이는 만큼 성공 노하우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에 심혈을 기울이자는 조언. 특히 한국 스마트시티는 신도시개발부터 기존 도시재생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란 분석. (출처: 헤럴드 경제 2024.09.10)